

KOSDAQ | 자본재

에스비비테크 (389500)

베어링을 넘어 로봇 부품 다크호스로 변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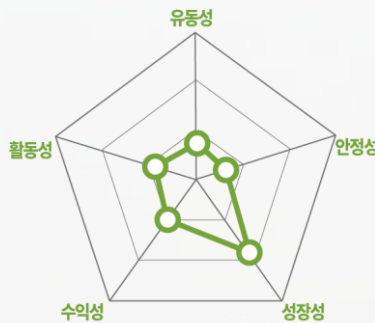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된 이후 디스플레이/반도체용 정밀 베어링 제조/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다 신사업으로 2013년 하모닉 타입 감속기를 개발, 로봇 부품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강소기업. 2022년 10월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 투자포인트는 1) 정밀 감속기 관련 높은 기술력 보유, 2) 로봇 산업 투자 확대 수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 리스크 요인은 로봇 부품 분야의 높은 경쟁강도. 미래 성장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로봇 부품 사업에 뛰어들어 로봇 부품 분야의 경쟁강도는 현재 매우 높고 이는 추가적으로 격화될 가능성 상존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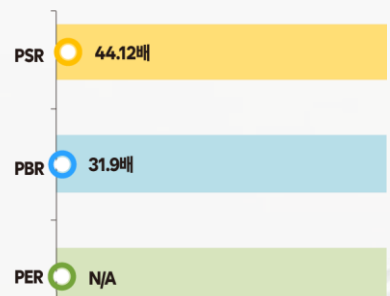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에스비비테크 (38950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혜빈 hbkim@kirs.or.kr

KOSDAQ

자본재

에스비비테크는 베어링, 감속기/액추에이터 전문기업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되고 2022년 상장된 IT 부품기업. 제품별 매출 비중은 베어링 등 61.9%, 감속기 21.7%, 기타(베어링 관련 가공품 등) 16.4%로 구분(3Q25 누적 실적 기준)

정밀 감속기 등 로봇 부품 시장은 견조한 성장 기대

감속기(Reducer)는 모터 등에 대한 고속회전 입력을 일정 비율로 감속하여 토크 증대와 고정밀의 회전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부품으로 로봇 관절 모듈(액추에이터) 내 핵심적 부품. 정밀 감속기인 글로벌 하모닉 타입 감속기 시장 규모는 2025년 8,997억 원에서 2028년 1.1조 원 규모로 성장 기대. 정밀 감속기/액추에이터 산업은 2013년경 일본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특허 만료 후 중국, 대만, 한국 부품기업들의 부상으로 다자 경쟁 체제로 재편 중. 로봇/로봇 부품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기대감으로 2025년부터 재도약 무드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 지속 중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70억 원, -75억 원으로 전망. 베어링 부문 실적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감속기/액추에이터 부문 실적 회복은 완만.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5% 성장한 94억 원으로 예상. 1)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 전략 고객과의 협업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와 2) 하반기 접어들며 로봇 완제품 신규 거래선 확대, 3) 하반기 방산 산업 관련 신규 고객 확보 효과 등이 기대됨. 전략 고객 확대와 준비 중인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관련 프로젝트들이 향후 실적 개선 폭의 주요 변수일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75	51	55	70	94
YoY(%)	10.2	-31.3	6.5	28.4	34.5
영업이익(억원)	-18	-56	-69	-75	-40
OP 마진(%)	-24.6	-108.5	-126.1	-106.6	-42.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3	-110	-9	-76	-40
EPS(원)	-1,040	-1,784	-145	-1,206	-626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11.7	47.4	20.3	32.4	24.6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8	21.0	9.2	50.2	41.6
ROE(%)	-36.7	-65.4	-7.6	-90.8	-78.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	36,700원
52주 최고가	42,050원
52주 최저가	17,620원
KOSDAQ (1/2)	94557p
자본금	31억원
시가총액	2,32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66억원
외국인지분율	1.10%
주요주주	케이피에프 외 2인 39.1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1	64.9	56.8
상대주가	1.2	36.4	13.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A',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에스비비테크는 베어링 및 감속기 제조/판매 전문기업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되어 2022년 상장한
베어링 및 감속기 국산화 선도기업**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되었다. 2000~2008년 기간은 에스비비테크에게 베어링 중심 제조기술 확립의 시기였다. 설립 초기 에스비비테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세라믹 볼, 베어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성장하였다. 즉 2003년 하이브리드 베어링을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에게 납품하였고, 2005년 WRIST(리스트,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장비의 손 역할 부품)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였다. 2008년에는 '로보 베어링(동사의 초박형 베어링)'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2010~2017년 기간은 신규 사업 도전의 시기라 볼 수 있다. 2010년 소형 감속기 개발에 이어 2011년 RV(싸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당시 관건은 정밀 감속기인 하모닉드라이브형 감속기(이하 하모닉 감속기) 개발 여부였는데, 노력 끝에 2013년 하모닉 감속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자사 하모닉 감속기 제품에 대해 '로보 드라이브'라는 제품 브랜드를 명명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액추에이터(감속기 포함한 5개 부품이 집약된 구동 모듈, 로봇의 관절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를 개발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감속기 양산을 개시하였고, '2017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12개사 중 한 개 기업으로 동사가 선정되었다(로봇신문 주관, 로봇 부품 부문).

2018~현재까지는 지배구조 변경 및 자본시장 상장 등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발현되고, 감속기 전문기업으로서 업계에 에스비비테크 이름을 알리는 시기였다.

큰 변화는 2018년에 일어났다. 중견그룹인 송현그룹이 동사를 인수하며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송현그룹 내 핵심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가 2018년 10월 사모펀드(ACPC PE)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에스비비테크 구주를 인수하였다. 송현그룹은 정밀기계/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에스비비테크 인수를 단행했다.

에스비비테크는 국내 기업 중 정밀 베어링, 감속기 분야에서 기술력이 높다고 인정받아 다수 수상을 하며 성장 기대감을 이어갔다. 2020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부장 으뜸기업(초정밀 구동 부품 분야)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는 높은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감속기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중저가형 액추에이터 등을 개발하였다.

2022년 에스비비테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상장을 통해 에스비비테크는 감속기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캐파 확대를 지속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다. 2022년 동사는 2018년 매출액 규모(92억 원)를 넘어서는 견조한 매출액(75억 원)을 달성하였지만, 이후 2023~2024년 각각 매출액 51억 원, 55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주었다. 2023~2024년 기간 반도체 업황 부진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베어링 및 감속기 수요가 기대 이하였던 점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다. 그러나 2025년 에스비비테크 매출액은 2022년 수준(75억 원)에 접근하며 주춤했던 성장성을 다시 보여줄 전망이다.

2026년 펼쳐질 산업 환경은 에스비비테크에게 우호적일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며 각종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정밀 베어링 주문이 예년 호황기 수준으로 증가세이며, 감속기 등 로봇 부품 분야 수요도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4~2025년 일부 전략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협업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감속기 등 로봇 부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비비테크 주요 연혁

2000~2009 볼베어링 기반 기술 확립	2010~2017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 성공	2018~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지향
2000 법인 설립 2005 기술부설연구소 승인 2008 특수환경용 세라믹 볼 베어링 개발 수출 백만불 탑 수상 세라믹 볼베어링 양산 개시 ROBO(초박형) 베어링 국산화 개발 및 공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2010 소형 감속기 개발 2011 RV감속기 개발 2013 하모닉 감속기(ROBO Drive) 개발 성공 2014 하모닉 감속기 특허설계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015 국방 기술품질원 사업기업선정 (구미국방벤처) 2017 감속기 양산 판매 개시, 협업용 MR Actuator 개발 올레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선정(로봇 부품 부문)	2018 송원그룹 편입 2019 소재/부품 우수 중소기업 대통령 방문 소부장 유망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삼성전자), 소형 협동로봇 개발 2020 대한민국 기술대상(장관상) 수상 2021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초정밀 구동부품 분야) RV감속기 등 감속기 라인업 확대 초저가 중소제조 로봇용 구동 모듈 개발 다관절로봇을 위한 중공형 감속기 개발 2022 코스닥 상장 삼정 집축식 감속기 개발 2023 감속기 경량화 모델 개발 2024 올레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선정(로봇부품 부문)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3Q25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베어링 등 61.9%, 감속기
21.7%, 기타 16.4% 기록

로보 베어링은 정밀 베어링으로,
반도체 진공 로봇 구동부의 필수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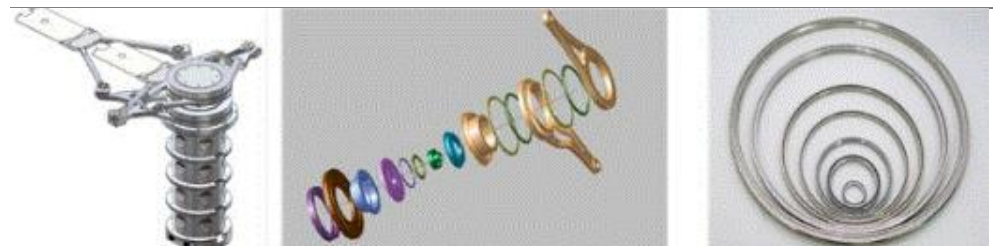
에스비비테크 제품별 매출 비중은 베어링 등 61.9%, 감속기 21.7%, 기타(베어링 관련 가공품 등) 16.4%로 구분된다 (3Q25 누적 실적 기준).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품별 정의,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어링 부문에는 3가지 주요 제품이 있다.

1. 베어링

✓로보 베어링(ROBO BEARING)

로보 베어링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진공 로봇 구동부의 필수 부품으로, 기존 베어링과 달리 진공 공정에 대부분 사용된다. 로보 베어링은 사용 환경 특성상 제품의 표면 처리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윤활 기술 및 후처리 기술이 집약된 부품이다. 로보 베어링은 정밀 베어링(Ultra Slim Bearing)으로, 베어링 단면 면적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베어링 설치공간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스비비테크 로보 베어링(ROBO BEARING)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고온, 내식성 등 특수 환경용 베어링

✓하이브리드 베어링(HYBRID BEARING)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일반 베어링이 적용되는 환경 외에 고온, 고속, 내식성 등 다양한 특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환경에 맞는 소재를 선정, 제작되는 베어링이다. 주로 세라믹, 스테인레스 스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적용 환경에 따라 텅스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기도 한다.

에스비비테크 하이브리드 베어링(HYBRID BEARING)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의 HAND 핵심 부품

✓ 리스트(WRIST)

리스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장비의 핵심 구동 부품이다. 로봇의 HAND(손)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기반으로 웨이퍼를 블레이드에 안착시킨 후 수평 직선 운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에스비비테크 리스트(WRIST)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력을 힘으로 변환해 고정밀 회전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로, 대표적으로 하모닉 타입, RV 타입, 유성기어 감속기가 있음

2. 감속기

로봇 등의 정밀제어를 위해 설계 및 가공 기술을 적용한 정밀기계 제품으로, 모터에 대한 고속회전 입력을 일정 비율로 감속하여 토크(힘) 증대와 고정밀 회전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이다. 쉽게 말하면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력을 힘으로 변환해주는 부품이다. 참고로, 감속기는 Reducer라고도 하고 감속기의 톱니바퀴 부분을 치형 또는 기어라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감속기 중에서 로봇 및 정밀 기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감속기로는 하모닉 타입 감속기와 RV(싸이클로이드) 타입 감속기, 유성기어 감속기가 있다. 소형 산업용 로봇 및 협동 로봇, 정밀 제어기계에서는 경량화 설계가 가능하고 고정밀 제어가 가능한 하모닉(타입) 감속기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중대형 산업용 로봇에는 사이즈가 크고 대형 로봇과 중장비에 적합한 RV(타입) 감속기가 쓰인다. 참고로, 유성기어 감속기의 경우 정밀도(기어 틈새)가 앞선

두 타입 감속기 대비 낮고 토크 밀도도 낮은 대신 가격경쟁력이 있어 일반 산업용 모터나 자동화 라인, 상대적으로 저부가 로봇, 중장비 등에 쓰인다. 에스비비테크는 하모닉 감속기와 RV 감속기를 위주로 감속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의 개발 의뢰가 있어 유성기어 감속기도 최근 개발을 완료하였다.

에스비비테크 감속기




SCSG/F 시리즈 컴포넌트 타입
고기능화, 고속화, 고부하용량, 미세화 등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사용자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기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It has high function, high acceleration, high load capacity and detail with three basic parts. The type directly built in the machine and the equipment enhance the degree of freedom in design.

SCSG/F 시리즈 컴포넌트 특징
컴팩트·심플한 디자인 (Compact / Simple design)
고강성 (High stiffness)
우수한 위치 결정 정도와 회전 정도 (High positioning and rotational accuracy)
입출력축 동축 (Coaxial input and output)

고토크 용량 (High torque capacity)
제로백래쉬 (Zero-backlash)
입출력축 동축 (Coaxial input and output)

SCSD 시리즈 컴포넌트 타입
SCSD 시리즈는 SCSF의 축방향 길이를 50% 단축 하여 편평 구조용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SCSD 시리즈 컴포넌트의 특징
컴팩트·심플한 디자인 (Compact/ Simple design)
고강성 (High stiffness)
우수한 위치 결정 정도와 회전 정도 (High positioning and rotational accuracies)

고토크 용량 (High torque capacity)
제로백래쉬 (Zero-backlash)
입출력축 동축 (Coaxial input and out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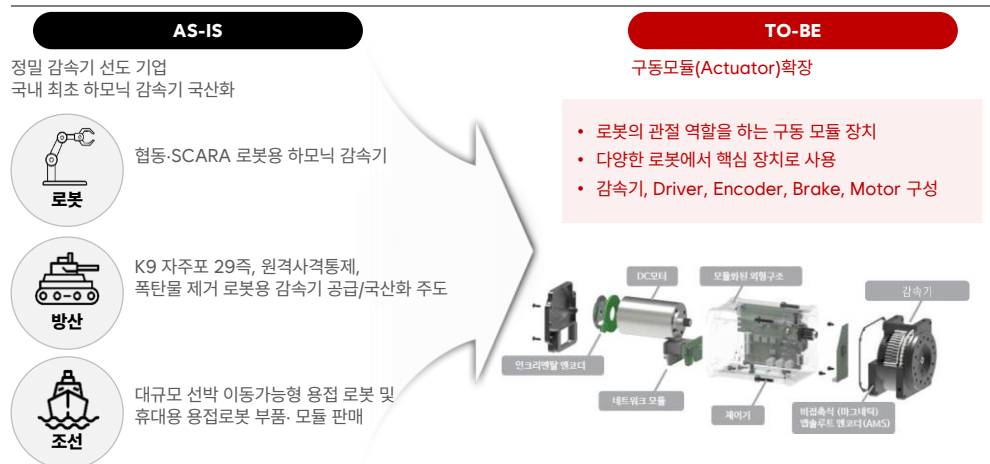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드라이브,
엔코더, 브레이크, 모터로
구성되어 로봇의 관절 역할을 담당

3.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로봇, 자동화 기기, 모빌리티 등의 구동 모듈이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담당한다.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드라이브(제어기), 엔코더(융합 센서), 브레이크(제동장치), 모터로 구성된다. 에스비비테크의 경우 액추에이터 매출 비중은 미미하고 대부분 감속기 위주로 매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요구에 따라 액추에이터 매출을 확대할 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스비비테크 액추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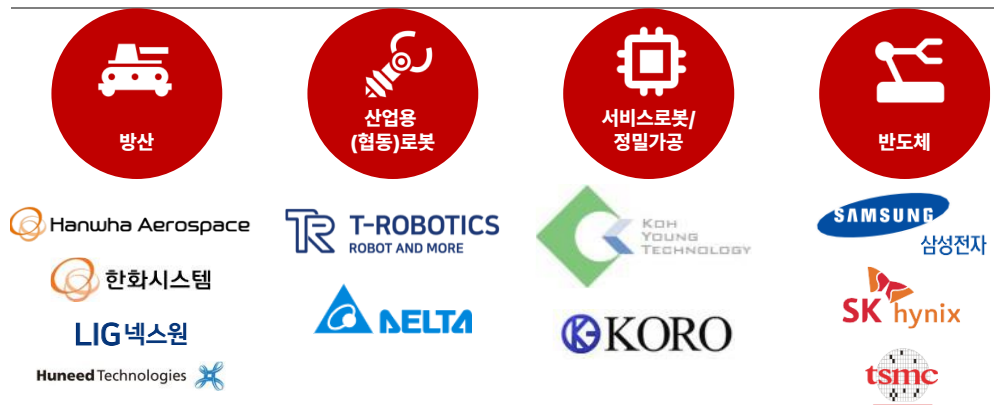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고객은 국내외 대형 종합반도체 및 관련 장비 기업

3 주 고객은 반도체, 방산,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완성차 관련 기업

에스비비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국내/외 대형 종합반도체 및 관련 장비 기업이다. 이는 현재 동사 매출액 중 70% 내외가 정밀 베어링 제품인 것에 기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속기/액추에이터 제품 성장으로 인하여 방산,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기업, 완성차 기업 고객 비중이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략 2028~2029년부터는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매출액 비중이 전체 중 60~7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향후 현재보다 신규 고객이 늘어 고객군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비비테크 현재 주요 고객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Q25말 기준 에스비비테크의 최대주주는 케이피에프로, 지분 36.65%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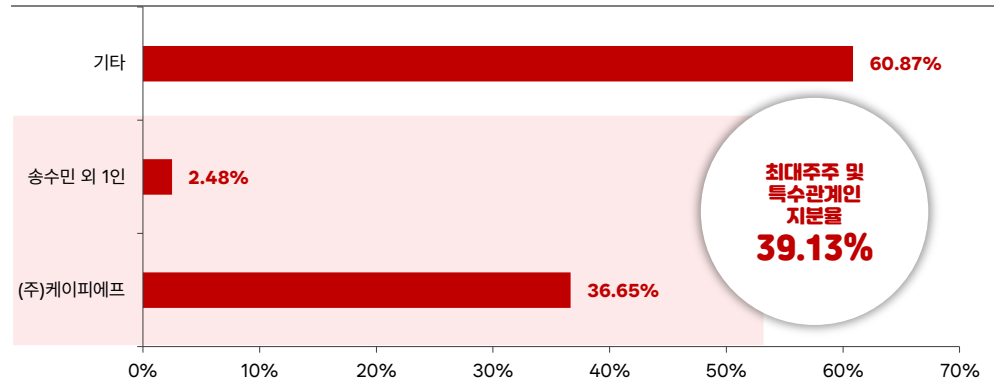
4 최대주주 등은 케이피에프 외 2인

3Q25말 기준 에스비비테크의 최대주주는 케이피에프로, 지분 36.65%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9.13%이다.

케이피에프는 1963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2025.01.02 기준 시가총액 1,021억 원)이다. 산업용 파스너(볼트 및 너트), 자동차용 단조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베트남/미국/중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파스너 등 관련 글로벌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케이피에프는 송현홀딩스 산하 기업이다(3Q25말 기준 송현홀딩스가 케이피에프 지분 34.47% 보유). 송현홀딩스는 송현그룹의 지주사이다. 송현홀딩스의 2024년 연결 기준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는 각각 6,495억 원, 1,815억 원이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1,276억 원, 59억 원, 134억 원을 기록했다. 송현홀딩스는 1991년 7월 29일에 설립되었고,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및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송현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송무현 회장 외 2인으로, 지분 23.10%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비비테크 주주 현황



주: 3Q25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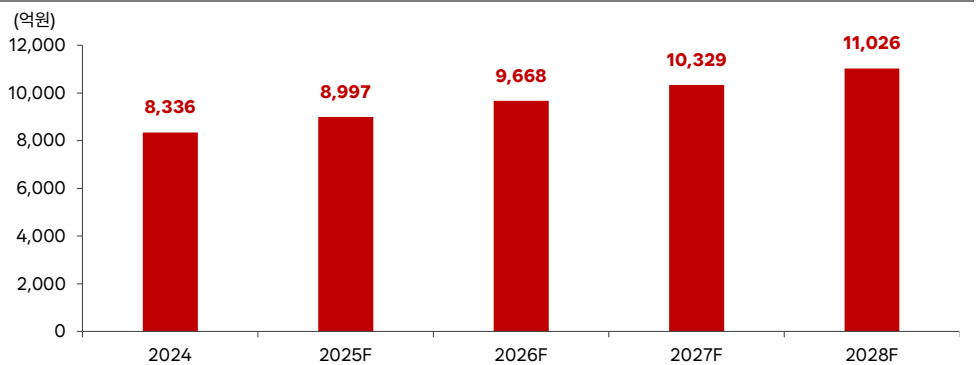
정밀 감속기(하모닉 감속기) 및 로봇 부품 산업 현황, 전망

글로벌 하모닉 감속기 시장 규모는
2025년 8,997억 원 규모로
전망되며, 2028년 1.1조 원까지
성장 기대

감속기(Reducer)는 정밀 제어를 위해 고도의 설계 및 가공 기술을 적용한 정밀 기계 제품으로, 모터 등에 대한 고속회전 입력을 일정 비율로 감속하여 토크 증대와 고정밀의 회전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부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속기 종류로는 하모닉 (타입) 감속기와 RV(사이클로이드) (타입) 감속기, 유성기어 감속기가 있다.

하모닉 감속기 글로벌 시장은 2025년 8,997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2028년까지 1.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Global Harmonic Drive Precision Gear Reducers Market Research Report 2023). 지역별 M/S로는 중국 55%, 일본 20%, 한국 5%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봇 산업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은 물론이고 군사용 로봇, 의료 로봇 등으로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분야로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라 하모닉 감속기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하모닉 감속기 시장 전망



자료: Global Harmonic Drive Precision Gear Reducers Market Research Report 2023 (QYR 2023),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제조업 자동화 발전 등에 따라
정밀 감속기의 중요성 부각,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일본)
글로벌 시장을 선도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매진했다. 제조업 선두 기업들은 생산성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장 자동화/로봇 시스템은 자동차, IT 산업 중심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미시적으로는 산업 수요에 따라 산업용 로봇 팔, 자동화 장비 구동에 점차 높은 기계 정밀도가 요구되었는데, 이로 인해 산업 내에서 감속기 부품의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글로벌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는 일본의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도쿄거래스, 6324)의 감속기 제품이 뛰어난 제품력으로 인해 업계 내에서 부각되었다(2025.01.02 기준 시가총액 2,333백만 달러).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의 감속기는 백래시(Backlash, 기어 틈새)가 거의 없는 특징으로 산업용 로봇, 항공우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은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감속기뿐만 아니라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은 액추에이터 사업도 활발히 영위 중이다. 동사의 로터리 액추에이터는 고정밀 모션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며, 정밀 기어, 모터 및 인코더가 결합되어 전력 밀도가 높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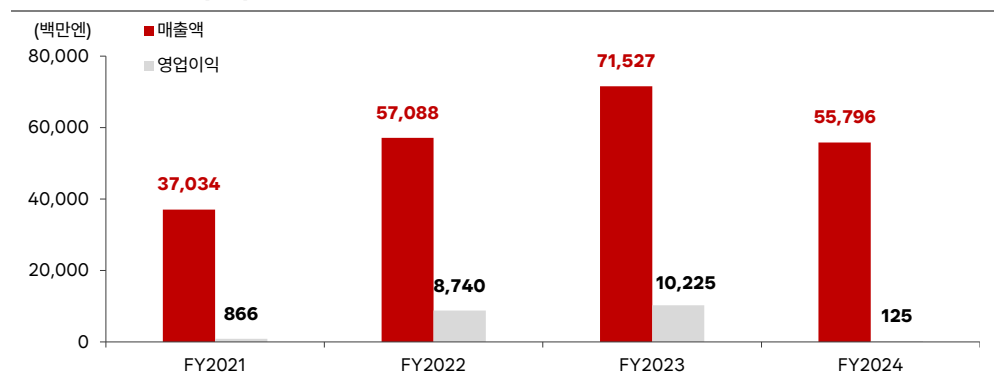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는 독보적인 감속기 제조 기술력으로 감속기/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전세계적 명성을 이어갔다. 마치 의류업계에서 버버리사의 트렌치 코트가 너무도 유명하여 트렌치 코트라는 의복을 ‘버버리’ 또는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듯(즉 고유명사의 대명사화), 구동 부품 분야에서 현재에도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제품과 유사한 정밀 감속기 제품을 ‘하모닉 타입 감속기’, ‘하모닉드라이브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등으로 부를 정도이다.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감속기가 각광받은 이유는 특허로 보호되기도 했었지만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 등 로봇 구동 품질이 감속기 품질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감속기 부품으로 인해 상당수 제조업 고객들은 공장 자동화 제반 장비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었다. 감속기라는 가볍고 작은 장치 안에 다양하고 정밀한 설계 특성을 도입한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는 각종 모션컨트롤과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부품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고성능이란 로봇/자동화 장비 동적 능력의 탁월함을 의미한다. 즉 빠른 주기시간(Cycling Time, 빠른 가속도/감속도/평균속도/설정시간 등), 부드러운 궤적(Smooth Trajectory), 적하능력, 위치결정 정확도(로봇이 명령받은 위치에 근접하는 정도), 반복도(로봇이 명령받은 지점까지 신속/정확하게 복귀하는 정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감속기 성능 요건으로는 1) 고정밀 2) 우수한 반복도 3) 제로(Zero) 백래시(튕니바퀴 내 튕) 4) 높은 비틀림 경도 5) 토크 밀도(Torque Density, 높은 토크와 가벼운 무게의 조합)로 제시될 수 있다.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특허 장벽은 2013년 이후 사라져 아시아 지역 중심의 감속기 연구개발 시대 도래

그러나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감속기 제품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의존, 쏠림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았다.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 감속기 제품의 원천 기술인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링(Strain Wave Gearing)에 대한 핵심 특허들은 이미 상당 부분 만료되었다. 기본 원천 특허들은 1970년대에 이미 만료된 바 있고,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가 보유했던 효율 및 정밀도 향상 등을 위한 주요 개량 특허들(s자 치형 구조 등)도 2013년을 전후로 대부분 만료되었다. 이로써 특허 장벽은 2013년 이후 사라졌다. 이후 로봇 및 자동화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 국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감속기를 연구개발하고 양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일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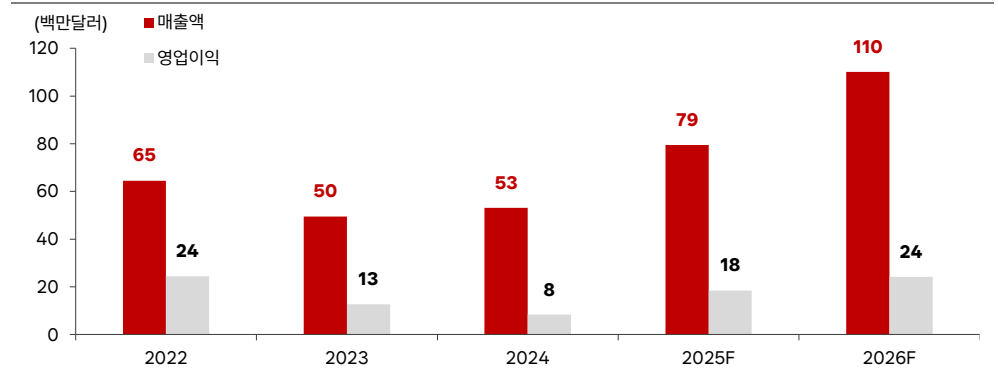
자료: Harmonic Drive System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하에 리더드라이브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감속기 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거의 모든 IT 부품들에 대해 글로벌 1위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로봇 부품 분야도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감속기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감속기 기업의 대표주자는 리더드라이브(Leaderdrive)로, 현재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내수 시장 내 감속기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했으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 진입을 노릴 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업계 평가가 다수이다. 리더드라이브 감속기 제품은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 제품 대비 30~50% 낮은 가격으로 판

매되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속기 분야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리더드라이브(중국)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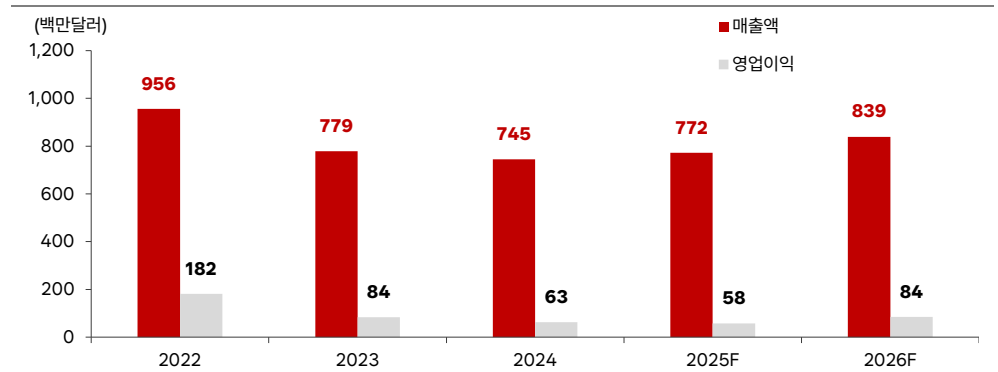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만의 하이윈은 모션컨트롤 강점으로 정밀 감속기 시장 진출

대만 기업들 역시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만 내 대표 감속기 제조기업은 하이윈(HIWIN)으로, 볼스크류와 리니어 가이드, 모션컨트롤 분야(감속기, 액추에이터 등) 글로벌 강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토탈 모션컨트롤 솔루션의 일환으로 정밀 감속기를 자체 개발하여 공급 중이다. 주요 전략으로 IT 기기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중소형 정밀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품 및 모듈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윈(대만)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감속기/액추에이터 기업: 로보티즈,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한국 부품 기업들 역시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스의 특허 만료 시기인 2013년 전후로 감속기/액추에이터 관련하여 국산화 및 본격적인 사업화 노력을 경주하였다. 대표적인 관련 기업은 로보티즈,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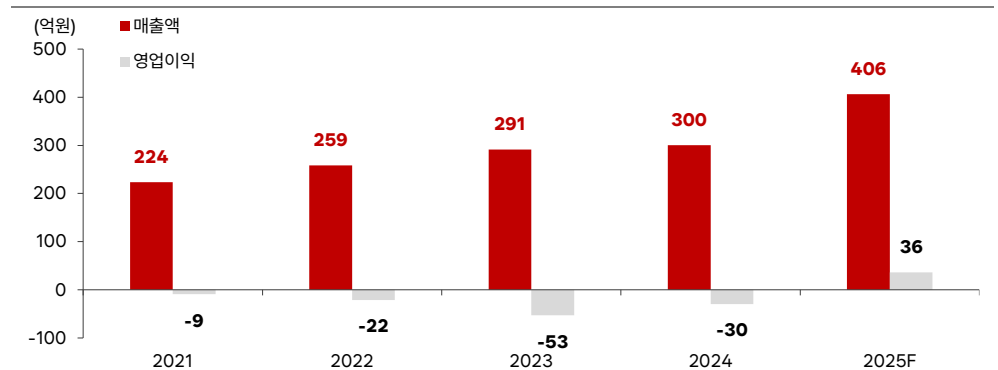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되어 2018년 상장한 국내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기업으로 로봇 부품 시장을 선도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된 로봇 부품 및 완제품 기업으로, 2018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국내 로봇/로봇 부품 기업 중 나름 역사가 긴 국내 대표기업이다.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브랜드 'DYNAMIXEL') 및 감속기(DYD) 등 국산화에 성공한 고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및 로봇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이나믹셀(DYNAMIXEL)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이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및 기타 통신 기능이 통합된 모듈형 구조로, 로봇 개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높였다.

액추에이터 제조/판매가 주력 사업이지만 자율주행 로봇 중심으로 완제품 사업도 진행 중이다(연결 종속회사 ‘로보티즈AI’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영위). 로봇 완제품 사업에서는 원천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내/외 물품 배송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개미(GAEMI)’를 개발하고,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고 강화 학습을 통해 작업을 최적화하는 양팔 로봇 ‘AI 워커(AI Worker)’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성장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상증자(2,099억 원 규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 우즈베키스탄에 액추에이터 생산기지 건립 및 데이터 팩토리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신공장은 2026년 중순 준공 목표이고,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부터 예상된다. 로보티즈는 중기적 비전으로 2027년 연매출액 800~1,000억 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로보티즈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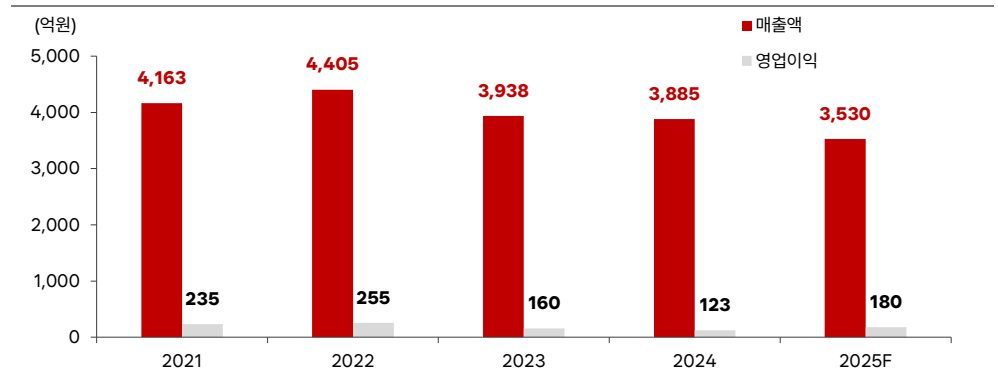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i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스피지는 1991년 설립 이후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정밀 모터, 감속기 기업

에스피지는 1991년 3월 설립 이래 기어드 모터(Precision control geared motor) 전문 제조업체로서 소형 정밀 모터, 산업용 모터, 가정용 모터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소형 기어드 모터의 주요 기능은 자동화 시스템 및 가전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 모터에 기어 박스 세트(감속 기어)를 부착하여 무거운 것을 운반하거나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어드 모터 외에 표준 AC 및 DC 모터, 콘덴서, BLDC 모터(가전용 및 산업용 모터), 동력모터 제품 등을 제조하는 물론이고 정밀 감속기, 유성기어 감속기 등 감속기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동사는 2010년대에 정밀 감속기 등 감속기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2019년경 정밀 감속기를 공식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내 로봇 대기업 등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스피지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해
2022년 상장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정밀 베어링
제조 기업으로, RV 감속기 및
하모닉 감속기 개발 및 양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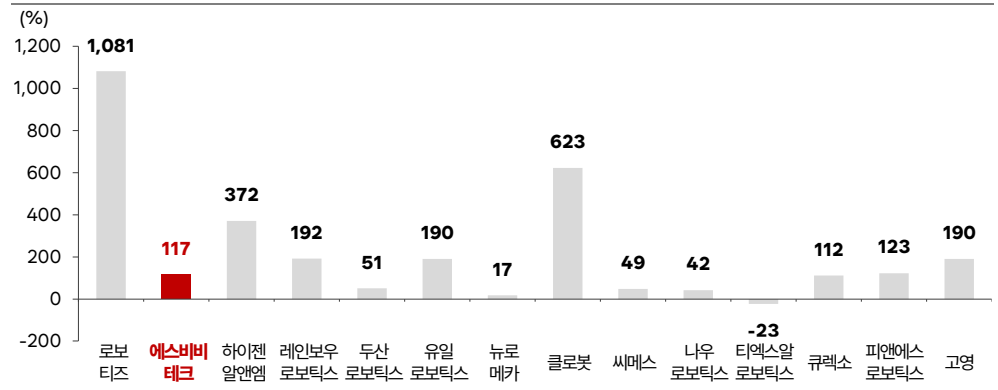
에스비비테크는 2000년 설립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정밀 베어링 사업을 영위하며 꾸준히 성장했으며 2011년 RV 감속기를 개발하였고, 2013년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하는 등 신사업으로 정밀 감속기 제품 관련 연구개발 및 양산화를 진행하였다. 2018년 송현그룹에 계열사로 편입되며 기존 주력 사업인 베어링보다 감속기 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는 로봇 부품 산업 성장성은 베어링 제품 성장성보다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동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연구개발 및 캐파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상장 시기 전후로 감속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감속기 사업 성장에 노력을 기했다. 다만 기대 대비 2023~2024년 국내 감속기 수요는 경기 부진 등으로 미약한 상황이라서 실적은 부진했다. 어려운 사업 환경에도 에스비비테크는 방산 및 완성차 기업, 로봇 벤처기업들과 물밑에서 협업의 폭을 넓혔다. 2023~2024년 에스비비테크 매출액은 각각 51억 원, 55억 원에 그치며 2022년 매출액 75억 원 대비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2025년 에스비비테크 매출액은 2022년 당시 수준(75억 원)에 접근하며 주춤했던 성장성을 다시 보여줄 전망이다.

**정밀 감속기/액추에이터 산업은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의 특허
만료 후 다자 경쟁 체제로 재편 중.
로봇/로봇 부품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기대감으로
2025년부터 재도약 무드**

결론적으로 정밀 감속기/액추에이터 산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선두업체인 일본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의 특허가 2013년경 만료되며 중국, 대만, 한국의 일부 IT 부품 강소기업들이 정밀 감속기/액추에이터 제품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보아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의 높은 아성은 위협받고 다자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무인화, 비대면 일상화가 완연해지며 로봇 및 로봇 부품 산업의 성장 기대감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2023~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협동 로봇 및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시장 기대 대비는 미진했고, 국내 로봇 및 로봇 부품기업들 상당수는 실적 부진 늪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로봇 기업, 예를 들면 로보티즈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졌다(로보티즈 3Q25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73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기록 VS 3Q24 매출액 233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따라서 로봇/로봇 부품 산업의 성장 기대감은 2025년 접어들며 다시 살아났다. 특히 2025년 초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시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습하며 로봇 부품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중 뜨겁게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로보티즈 등 로봇 부품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전례없이 큰 성장을 시현하였다.

로봇/로봇부품 기업 2025년 주가 상승률 추이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정밀 베어링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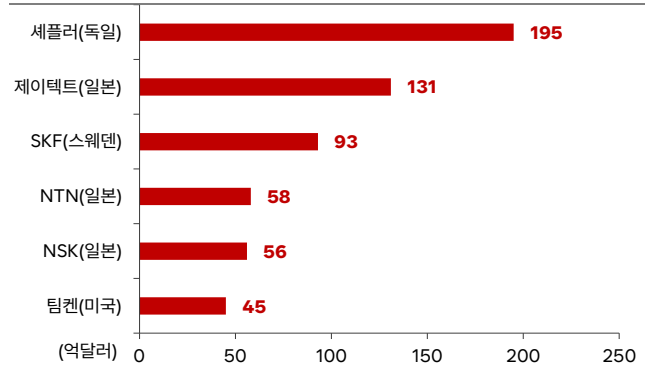
베어링은 기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마찰 형식에 따라 크게 구분

베어링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중량물의 하중을 지지하여 구동하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주로 기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어링은 마찰의 형식에 따라 미끄럼 베어링(Sliding bearings)과 구름 베어링(Rolling bearing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밀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 중에서도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응용 분야를 위해 특별 제작된 베어링으로, 일반 베어링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며, ABEC 등급(ex. ABEC-1, 3, 5, 7, 9 등 숫자가 클수록 정밀해짐) 또는 ISO 등급(ex. P6, P5, P4, P2,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으로 정밀도가 분류되고, 주로 볼 베어링 타입이나 일부 원통 롤러 베어링으로 제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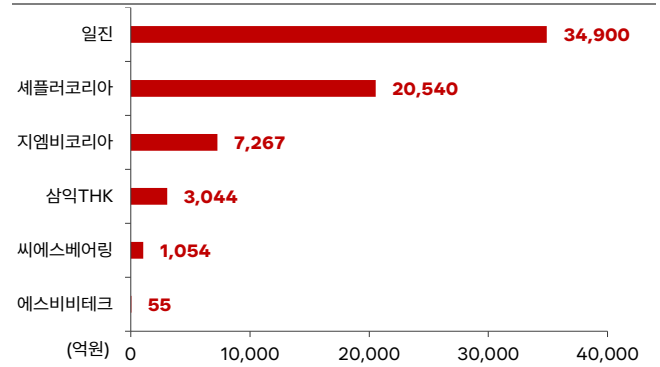
정밀 베어링은 진동과 소음이 적고 회전 정확도가 우수하며, 두께가 매우 얇아 공간 절약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정밀 베어링은 로봇의 관절 구동부, 반도체 제조 장비, 항공기 부품과 위성 시스템 등의 항공우주 분야, 전기차 모터와 변속기 등의 자동차 분야, 의료기기 분야(치과 드릴, 각종 스캐너) 등 다양한 고정밀 요구/응용 분야에 적용된다. 베어링 산업은 초정밀 가공기술과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기술 난이도로 인해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선도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베어링 기업으로는 세플러(독일), 제이텍트(일본), SKF(스웨덴) 등이 있으며, 국내 주요 베어링 기업으로는 일진, 세플러 코리아, 지엠비코리아, 삼익THK, 씨에스베어링, 에스비비테크 등이 있다.

글로벌 주요 베어링 기업 매출액(2024년 기준)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베어링 기업 매출액(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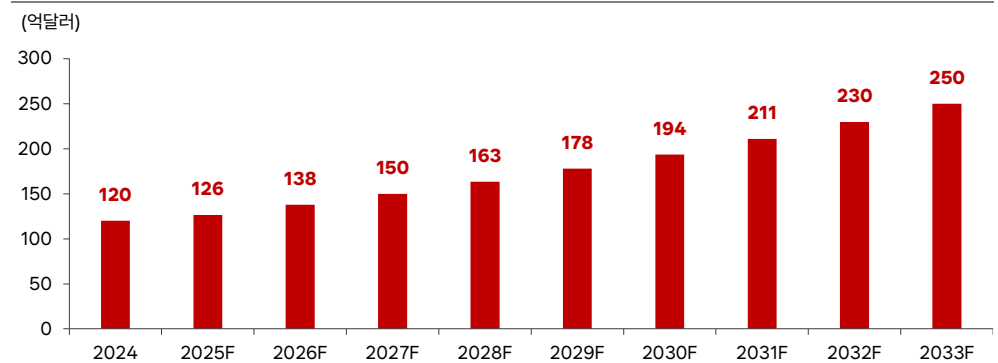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정밀 베어링 시장은**로봇/반도체 등과 같은****제조업의 성장과 동행**

글로벌 정밀 베어링의 주요 전방시장은 공작기계(34%), 반도체 장비(26%), 항공우주(18%), 의료용 모터(12%) 등으로, 로봇/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IT 제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글로벌 정밀 베어링 시장은 2024년 약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로봇 관절 및 정밀 감속기 수요 증가, 반도체 클린룸 환경에 부합하는 저진동/저발진 베어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025년 이후 연평균 8.9%로 성장하여 2033년 2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Verified Market Reports).

글로벌 정밀 베어링 시장 전망



자료: Verified Market Reports(2025.02),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정밀 감속기 관련 높은 기술력 보유

에스비비테크는 2013년 하모닉 감속기 개발해 정밀 감속기 관련 높은 기술력 보유

에스비비테크는 정밀 감속기 관련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013년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선두권으로 정밀 감속기 제조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동사의 감속기 제품 관련 기술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자 치형 설계 기술과 소재 기술을 확보하여 고성능 감속기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초소형 액추에이터 개발 연구도 진행

✓최적의 치형 설계/해석 원천 기술 확보

동사는 감속기 개발/양산시 독자 치형 설계를 진행하여 경쟁사들 대비 특허 이슈에서 자유롭고, 낮은 생산원가 구조 기반을 확보했다. 치 맞물림을 극대화하여 최적 맞물림을 구현하였고, 접촉면 곡률 최적화로 넓은 접촉 면적을 확보한 High Conformal 치형 구현을 통해 감속기 내구성과 강성을 증대하였다. 맞물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 간섭 방지 및 최적 맞물림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도 갖추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에스비비테크는 경박단소하고 고투크 구현이 가능한 정밀 감속기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경박 단소 100 Nm급, 고비토크 178 Nm, 고비토크 87 Nm급 감속기 개발).

✓품질 안정화 위한 소재 기술 확보

동사는 품질 균일성을 위해 동사만의 단조, 열처리 공정 기술도 확보하였다. 연구개발을 통해 내치용 구상흑연주철 소재 구상화율 80%를 달성하고, 외치용 기계구조강의 조직 치밀성도 한단계 향상시켰다. 또한, 하모닉 감속기 부품별로 소재분석 DB를 구축하고, 불량품 손상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최적 소재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핸드용 액추에이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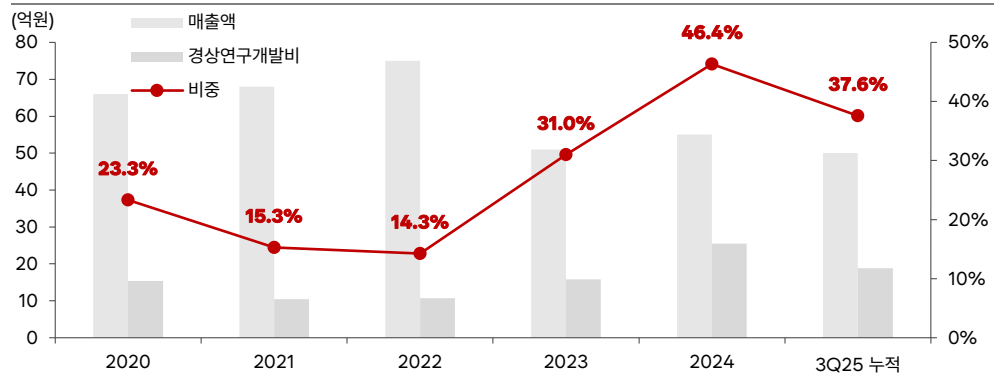
에스비비테크는 초소형 기어헤드 타입의 액추에이터 관련하여 기본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초소형 액추에이터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관련한 기초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경장연구개발비 비중은 3Q25 누적 기준 37.6%로 높은 수준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속기/액추에이터 관련 기술선점 추구 전략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

에스비비테크는 기술 중시 기업으로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경장연구개발비 비중은 2020년 23.3%에서 3Q25 누적 기준 37.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에스비비테크의 연구인력 인원은 3Q25말 기준 20명으로, 총 임직원수(97명) 대비 21% 비중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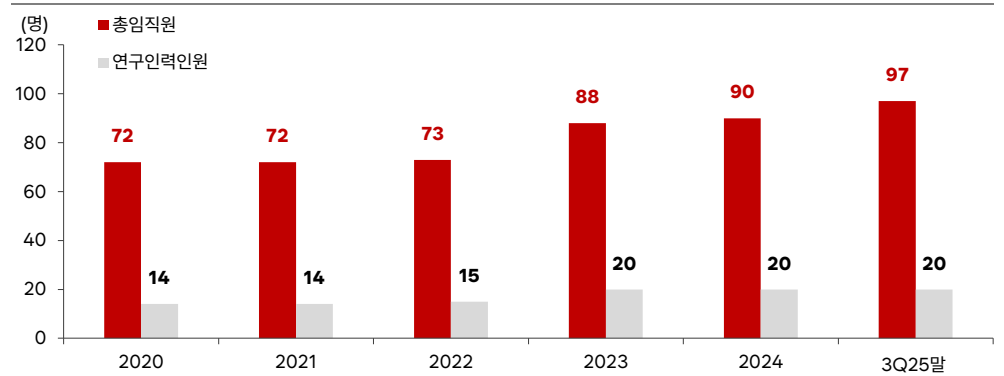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개발 중시 기조는 단기적으로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속기/액추에이터 관련 기술선점 추구 전략 방향성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로봇 제조원가에서 감속기는 30%대 비중을 차지하며 로봇 제조원가의 병목(bottleneck,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감속기 관련 제반 기술력 확보는 로봇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된다.

에스비비테크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스비비테크 총 임직원수, 연구인력 인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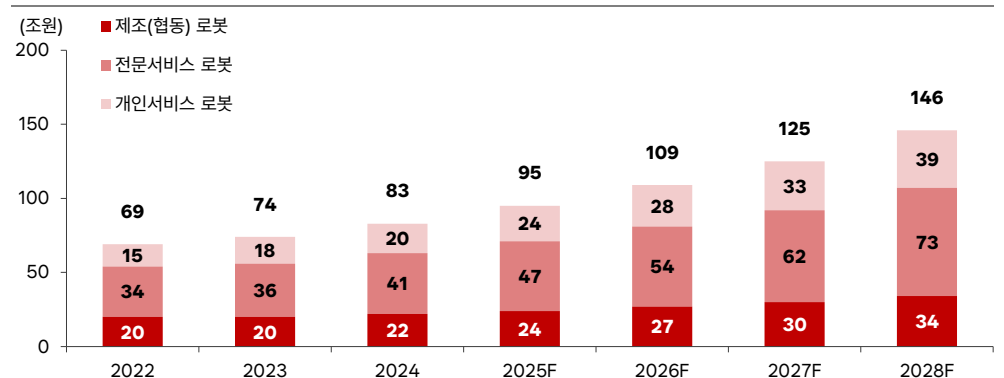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산업 투자 확대 수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에스비비테크는 로봇 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로봇 산업은 견조한 성장이 기대된다. 에스비비테크는 로봇 산업의 투자 기조 확대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2년 69조 원에서 2028년 146조 원 규모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글로벌 로봇 시장 전망



자료: Markets and Marke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술력 선점이 중요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개인화 미디어를 활용한
신생 스타트업들이 산업을 주도**

이뿐만이 아니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시장은 그 미래 성장률이 아직 정확히 가능되지 못할 정도로 기대되는 분야로, 로봇 산업 내에서 가장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은 미국 테슬라, 피규어AI, 중국 유니트리, 유비테크, 애지봇 등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미국, 중국 지역 위주로 신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신생 스타트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 기술을 주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아 양산능력보다 기술력 선점이 중요하데, 스타트업들이 통상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개발 관련 의사결정 과정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비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화된 미디어 매체의 활성화로 어떤 기업이 기술력만 있다면,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전세계로 빠르게 홍보할 기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달린 환경 하에서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들이 초기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 자금 확보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력 증진으로 선순환 흐름이 일부 혁신 기업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당 40여
개의 감속기를 필요로 함에 따라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급격한
부품 수요 증가 예상**

요점은 글로벌 로봇 산업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감속기/액추에이터 등 로봇 부품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감속기/액추에이터는 로봇 제조의 필수 부품이고, 로봇 제조원가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요도가 높다. 특히 기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등에 쓰이는 감속기/액추에이터 개수는 로봇 대당 6개 내외에 불과한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할 시 로봇 부품 수요는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이드에는 로봇 대당 약 40여개의 감속기/액추에이터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에스비비테크는 방산 대기업과
일부 로봇 기업에 감속기를
납품하며 국내 대형 로봇
기업들과의 협업을 확대**

에스비비테크는 일부 로봇 기업과 방산 대기업들에 감속기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대형 로봇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 대형 로봇 기업들과는 협업 준비를 늘리고 있다. 아직 물밑에서 논의 중이거나 영업비밀 측면에서 공개가 제한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으나, 최근 이미 공사로 공개된 프로젝트도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납품
목표로 계양전기와 모빌리티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초도 물량
계약을 체결**

에스비비테크는 25.12.03에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였다. 판매 내용은 '모베드 DnL 모듈 조향편심기' 이고, 확정 계약금액은 6.6억 원 규모이다. 계약 상대는 자동차 부품업을 영위하는 계양전기이나, 동사가 납품한 조향편심기를 계양전기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재납품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25.10.16~26.01.23 이며, 이번 물량은 초도물량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물량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모베드는 2025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에서 양산형 모델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양산형 모베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신개념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양산형 모베드의 차별화 포인트는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으로 DnL(Drive and Lift) 모듈 기술이 주요하다. DnL 모듈은 주행, 조향, 제동, 자세 제어를 한번에 가능하게 하는 모듈이다. DnL 모듈을 통해 모베드는 경사나 요철이 있는 표면이나 최대 20센티미터 높이 연석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주행이 가능하다. 모베드의 용도는 실외 배송, 순찰, 영상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모베드를 1H26부터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라 천명하였다.

모베드 DnL 모듈 조향편심기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로, 모빌리티용 액추에이터이다.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에 장착이 될 전망이고, 향후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특히 최종 고객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만큼 이번 협업이 에스비비테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은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로봇 부품 산업은 낙수 효과 기대

결론적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은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부품 산업은 이와 동반하여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동사는 다양한 로봇 기업 및 글로벌 완성차 고객과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등 제품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그간 답답한 측면이 있던 동사 성장 잠재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에스비비테크 모빌리티 액추에이터

-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Mobile Eccentric Droid)
- DnL 모듈 조향편심부 사양산 진행 중 (SOP 26.2)



자료: 에스비비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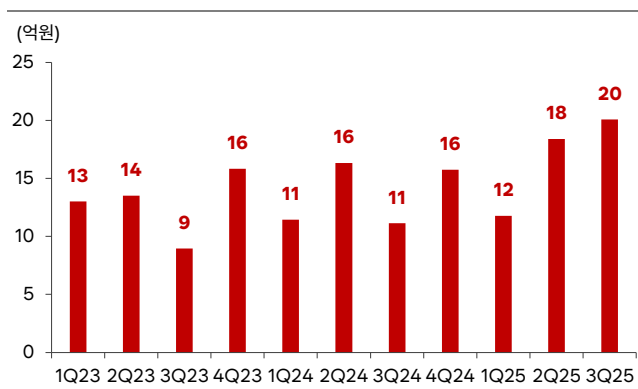
3Q25 누적 실적 리뷰

**3Q25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50억 원(+29.2% YoY),
-60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

2025년 3Q25 누적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50억 원(+29.2% YoY), -60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3분기 누적 실적(39억 원) 대비 성장했는데, 올해초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인해 베어링 수요가 견조한 점이 매출액 증가의 주 요인이었다. 상반기 매출액(30억 원)은 전년 상반기(28억 원) 대비 소폭 성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3분기부터 베어링 주문이 더욱 강해졌고, 감속기와 일부 액추에이터 관련 주문도 3분기부터 다소 개선되었던 것이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3분기 매출액은 20억 원으로 전년 3분기 11억 원 매출 대비 큰 폭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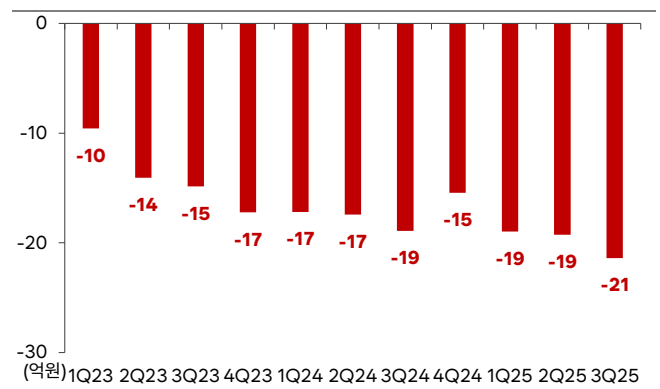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60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억 원) 대비 악화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증가 및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확대된 데 기인했다. 3Q25 누적 기준 사업보고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에 따르면, 1) 급여 및 퇴직급여액이 전년 13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 감가상각비 항목이 전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주식기준보상 항목은 전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3Q25 누적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년 51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7.8%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F 실적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70억 원(+28.4% YoY),
-75억 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4% 성장한 70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요 호조에 따른 베어링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감속기/액추에이터 부문에서 전략 고객 관련 주문 증가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로보 베어링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성장을 전망하였고, WRIST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62% 성장할 전망이다. 기타(베어링 관련 가공품 등)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25% 성장을 가정하였다. 반면, 감속기 부문 매출액은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전년(-69억 원) 대비 6억 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제품, 신규 고객향 사업 준비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연구개발 인력 중심 인건비 부담이 상존하는 점, 매출 규모의 경제 미비로 고정비 부담 지속 등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참고로 감속기/액추에이터 부문은 제조공정 효율화 등을 위해 2026년 2월경 생산라인을 이전(현재 김포에서 천안 지역으로)할 예정으로, 2Q26부터는 감속기/액추에이터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감소가 예상된다.

2026F 실적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4억 원(+34.5% YoY), -40억 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5% 성장한 94억 원으로 예상한다. 1)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 전략 고객과의 협업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와 2) 하반기 접어들며 로봇 완제품 신규 거래선 확대, 3) 하반기 방산 산업 관련 신규 고객 확보 효과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략 고객 확대와 준비 중인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으나, 아직 그 가시성을 단정할 수 없어 매출액 추정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관점을 유지했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로보 베어링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WRIST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35% 성장을 전망하였다. 기타(베어링 관련 가공품 등)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35% 성장을 가정하였다. 감속기 부문 매출액은 신제품 및 신규 고객 확대 수혜로 인해 전년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전망한다. 감속기/액추에이터 제품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과 제조원가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베어링 매출액 규모 확대가 지속되며 영업적자는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손익 개선은 고객 다변화가 좀더 빠르게 진행될 시기인 2026년 하반기에 도드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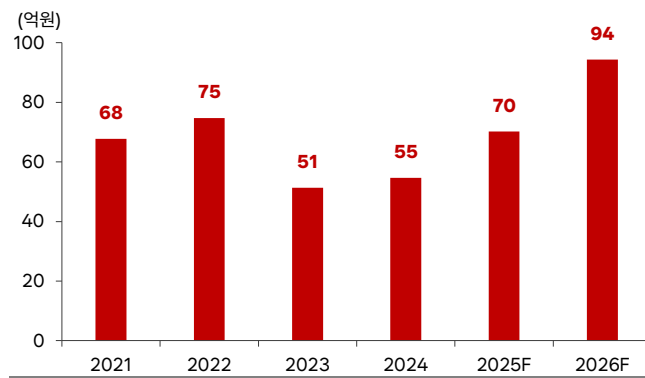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75	51	55	70	94
① 감속기	20	21	18	18	26
② ROBO BEARING	17	9	13	19	25
③ WRIST	13	7	9	12	15
④ HYBRID BEARING	8	6	4	7	10
⑤ 기타	17	8	11	14	19
영업이익	-18	-56	-69	-75	-40
지배주주순이익	-53	-110	-9	-76	-40
YoY 증감률					
매출액	10.2	-31.3	6.5	28.4	34.5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24.6	-108.5	-126.1	-106.6	-42.0
지배주주순이익률	-70.5	-214.5	-16.4	-108.0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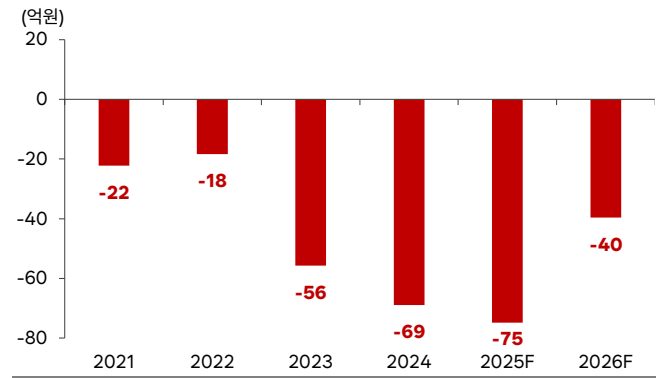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SR 24.6배로 거래 중
**동사 PS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 대비 높음**

2026년 1월 2일 기준 에스비비테크 시가총액은 2,325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에스비비테크의 예상 PSR은 24.6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2.0배) 대비 크게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

**동사 Peer로 에스피지,
로보티즈를 선정**

에스비비테크는 정밀 베어링 및 감속기/액추에이터 제조/판매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가장 유사한 상장 기업은 국내 상장사 중 에스피지이고, 그 외에 유사한 기업으로는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등이 있다. 동사의 Peer로 에스피지, 로보티즈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하이젠알앤엠은 실적 컨센서스 부재). 에스비비테크가 영업적자 상황으로, 기업간 상호 비교는 PSR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2026년 비교 3개사의 PSR 밸류에이션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동사 PSR 24.6배 VS 에스피지 PSR 4.1배 VS 로보티즈 PSR 60.5배). 에스비비테크는 에스피지 대비는 상대적으로 PSR 할증을, 로보티즈 대비는 상대적으로 PSR 할인을 받고 있다.

에스피지는 소형 정밀 모터, 산업용 모터, 가정용 모터 등 광범위한 기어드 모터 제품군을 생산해온 기업으로, 2019년 정밀 감속기 양산을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 산업 및 가정용 모터 매출 비중이 높고 감속기 매출 비중은 5% 미만이며, 비교 기업인 에스비비테크, 로보티즈 대비 높은 비중으로 기존 사업 매출액을 시현하고 있는 점이 주요 할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로보티즈는 모터감속기-제어가통신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다이나믹셀 시리즈 제품을 기반으로, 로봇 관절 구동용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구글의 알로하 프로젝트 등 굵직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할증 요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로보티즈는 3Q25 누적 기준 매출액 273억 원(+17.5% YoY),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십억원)			PSR(배)			PBR(배)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코스피	4,310	3,453,441	3,752,926	3,048,525	3,300,645	-	1.0	0.9	-	1.4	1.3
코스닥	946	516,088	334,116	106,516	123,242	-	2.4	2.0	-	3.2	2.8
에스비비테크	36,700	232	5	7	9	20.3	32.4	24.6	9.2	50.2	41.6
에스피지	82,700	1,834	388	353	443	1.3	5.2	4.1	2.0	N/A	N/A
로보티즈	269,500	3,927	30	41	65	9.9	89.3	60.5	3.1	39.6	37.4
동종업종 평균				-	-	5.6	47.2	32.3	2.6	39.6	37.4

주: 2026년 1월 2일 종가 기준. 동종그룹 25F, 26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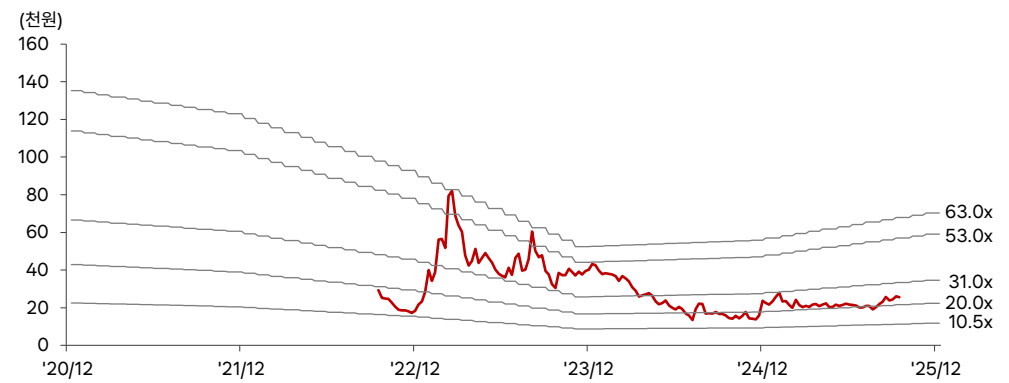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스비비테크 주가는 2024년 연간 약 54% 하락하며 부진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 및 감속기 판로 개척 미진으로 인해 연매출이 50억 원대로 머물고, 영업적자가 확대(영업이익 2023년 -56억 원 → 2024년 -69억 원)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5년 에스비비테크 주가는 반전을 보여 연간 약 101% 상승하였다. 테슬라, 보스턴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선도기업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며 로봇/로봇 부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졌고, 아직 미진하나 에스비비테크도 2023~2024년 극도의 실적 부진 이후 2025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략 고객과의 협업 확대와 가동률 상승 등이 진행되어 매출액이 성장하고 영업적자가 개선된다면 에스비비테크 기업가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에스비비테크 PS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로봇 부품 분야의 높은 경쟁강도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으로 부품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경쟁 심화로
인해 연구개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차별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

정밀 감속기/액추에이터 분야는 로봇 산업의 성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등에 쓰이는 감속기/액추에이터 개수는 로봇 대당 6개 내외에 불과한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할 시 로봇 부품 수요는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이드에는 로봇 대당 약 40여개의 감속기/액추에이터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로봇 부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일부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감속기/액추에이터 분야를 신사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여러 IT, 자동차 대기업 산하 부품 기업들도 감속기/액추에이터 제조/판매 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로봇 부품 분야의 경쟁강도는 현재 매우 높고 이는 추가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로봇 부품 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전략 고객들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판매, 전략적인 제휴,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자본 확보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단순히 제조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로봇 부품 산업 내 존재감을 발현하기는 기대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최근 로봇티즈의 성장세는 로봇 부품 강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는 있다. 로봇티즈의 경우 자본력이 좋은 대기업 산하 계열사가 아니지만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국내 선두 지위를 유지함은 물론, 해외 빅테크향으로 액추에이터 제품을 활발히 판매하고 실적도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영업이익 흑자전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 조달을 바탕으로 해외 공장 신설 등도 손조롭게 진행하는 등 로봇티즈는 국내 로봇 부품 강소기업 중 성장 순항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이후 로봇/로봇 부품 산업 분야에서 이른바 '육석가리기 시대'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로봇/로봇 기업 투자 매력도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매출액 성장 가시성을, 2차적으로는 영업이익 흑자전환 가능성 정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75	51	55	70	94
증가율(%)	10.2	-31.3	6.5	28.4	34.5
매출원가	55	50	54	72	74
매출원가율(%)	73.3	98.0	98.2	102.9	78.7
매출총이익	20	1	1	-2	20
매출이익률(%)	26.4	2.7	1.8	-2.6	21.6
판매관리비	38	57	70	73	60
판매비율(%)	50.7	111.8	127.3	104.3	63.8
EBITDA	-9	-42	-53	-41	-7
EBITDA 이익률(%)	-11.4	-82.7	-97.7	-58.8	-7.3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18	-56	-69	-75	-40
영업이익률(%)	-24.6	-108.5	-126.1	-106.6	-42.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35	-54	61	-1	0
금융수익	1	7	74	4	5
금융비용	39	61	13	4	5
기타영업외손익	4	-1	0	-1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3	-110	-8	-76	-4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0	1	0	0
계속사업이익	-53	-110	-9	-76	-4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3	-110	-9	-76	-40
당기순이익률(%)	-70.5	-214.5	-16.4	-108.0	-42.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53	-110	-9	-76	-40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32	-41	-47	-29
당기순이익	-53	-110	-9	-76	-40
유형자산 상각비	10	13	15	34	33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8	-2	1	2	-15
기타	39	67	-48	-7	-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4	-373	242	34	-2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120	653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3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8	-25	-22	-50	-30
기타	4	-471	-389	84	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8	288	-202	0	110
차입금의 증가(감소)	1	-10	0	0	30
사채의증가(감소)	0	300	-200	0	30
자본의 증가	148	0	0	0	5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	-2	-2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102	-116	-0	-14	54
기초현금	36	138	22	21	8
기말현금	138	22	21	8	62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179	405	140	59	131
현금성자산	138	22	21	8	62
단기투자자산	0	352	86	10	13
매출채권	9	7	11	14	19
재고자산	25	21	16	20	27
기타유동자산	7	4	6	7	10
비유동자산	129	140	149	165	163
유형자산	121	132	140	156	153
무형자산	0	0	2	2	2
투자자산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8	8	7	7	8
자산총계	308	545	289	224	294
유동부채	74	417	160	170	227
단기차입금	60	50	50	50	80
매입채무	3	2	2	10	4
기타유동부채	11	365	108	110	143
비유동부채	12	12	7	9	1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	12	7	9	11
부채총계	87	429	168	179	238
자배주주지분	221	116	121	46	56
자본금	31	31	31	31	31
자본잉여금	329	329	329	329	379
자본조정 등	3	9	18	18	1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7	27	32	32	32
이익잉여금	-169	-279	-288	-364	-404
자본총계	221	116	121	46	5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4.8	21.0	9.2	50.2	41.6
P/S(배)	11.7	47.4	20.3	32.4	24.6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040	-1,784	-145	-1,206	-626
BPS(원)	3,574	1,880	1,967	720	883
SPS(원)	1,475	831	885	1,116	1,49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36.7	-65.4	-7.6	-90.8	-78.1
ROA	-21.8	-25.8	-2.1	-29.5	-15.3
ROIC	-14.1	-36.7	-49.6	-42.5	-20.2
안정성(%)					
유동비율	239.7	97.2	87.3	34.6	57.7
부채비율	39.4	369.7	138.0	391.8	425.3
순차입금비율	-32.7	33.4	38.0	298.8	247.6
이자보상배율	-3.6	-19.1	-26.6	-53.0	-23.5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1	0.1	0.3	0.4
매출채권회전율	8.1	6.4	6.2	5.6	5.7
재고자산회전율	3.5	2.3	3.0	4.0	4.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스비비테크	O	X	X

2025년 12월 9일 기준 투자경고 지정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1.06	에스비비테크-베어링을 넘어 로봇 부품 다크호스로 변모 중
2023.05.30	에스비비테크-로봇 부품 분야 신흥 강자를 꿈꾼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